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한길연(서울대)

1. 서론
2. ‘설초벽’의 인물형상의 특징
 - 2.1. 남편과 동등한 지기 관계 맺기
 - 2.2.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나기
 - 2.3. 친정 奉祭祀 및 혈통 잇기
3. ‘설초벽’의 인물형상의 의의-결론을 대신하여

1. 서론

그간 <유씨삼대록>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유효공선행록>과의 연작 양상, 창작시기, 작가의식, 삼대록계 소설로서의 구조적 특징, 정-부실 간의 갈등 양상, 죽음의 형상화 방식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1) <유씨삼대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이수봉, 「가문소설 연구」, 『동아논총』 15, 동아대학교 출판부, 1978; 이수봉, 「<유씨삼대록> 연구」, 『동천 조건상박사 고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8;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김현숙, 「<유씨삼대록> 연구-삼대기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뉴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조용호, 「<유씨삼대록>의 서사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5;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등이 있다.

이 중 작가의식과 관련하여 그간의 연구가 주로 가문창달 등의 내용과 관련되었던 것과는 달리, 박일용은 여성주의적 세계관과 관련하여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을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해석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진양공주’라는 여성인물의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여 <유씨삼대록>을 “가문소설 형태를 띤 ‘진양공주전’”이라고 보고, 이러한 여성주의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은 이 작품의 향유층이 하가한 공주나 궁녀 등 왕실 주변의 상층 여성들이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하였다.²⁾ 실제로 <유씨삼대록>이 貞明公主가 하가한 혜경궁 홍씨의 친정 집안인 豊山洪氏 가문에서 읽혔다는 기록을 최근 한중록의 이본인 버클리대본 <寶藏>에서 발견함으로써 이런 논의는 더욱 신빙성을 얻게 되었다.³⁾

이처럼 <유씨삼대록>은 여성주의적인 세계관이 그 근저에 깔려있다고 평가받았으며, 이러한 논의의 중심축에는 진양공주가 놓여 있었다. 실제로 진양공주라는 인물은 매우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면서 유씨 가문의 정신적 지주라 할 만큼 살아서도 죽어서도 유씨 가문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러한 논의는 타당하다. 그런데 그간의 논의에서는 진양공주를 비중 있게 다루다 보니 그 밖의 여성인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여타의 여성인물들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특히 작품 안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 문체적인 면모로는 진양공주를 능가하는 여성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바로 ‘설초벽’이라는 여성영웅형 인물이다.⁴⁾ 진양공주가 현숙한 숙녀의 전형으로 등장하는데 반해, 설초벽은 활달한 여걸의 전형으로 등장한다.⁵⁾

2) 박일용, 앞의 논문, 218면.

3) 한길연, 앞의 논문, 1-30면.

4) 설초벽은 결혼 전 남장한 상태에서 문무 장원을 하고 이후 여성임이 밝혀진 뒤에는 여장군에 임명된다. 그런데 조정에서 여장군으로서의 이름이 높았다는 대목은 있지만 出戰하는 등의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설초벽은 여타의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처럼 확연한 대외적 활약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설초벽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은 여성영웅형 인물들과 흡사하게 닮아 있기에 크게 보면 여성영웅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출전 대목이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능력의 탁월함을 보여준다면 여성영웅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217-219면)

5)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20권 20책 <유씨삼대록>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런데 <유씨삼대록>에서 설초벽에 관한 내용은 진양공주 등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그녀

설초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보인다. 첫째, 그녀는 남편과 지기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가부장제 체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 전 男裝하여 붕우로 있을 때의 지기로서의 관계가 결혼 후 女裝하고 부부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그녀는 남편과 적국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택을 떠나 자기만의 공간으로 가서 평생을 지낸다는 점에서 여성의 공간에 관한 다양한 물음들을 함축하게 된다. 그것도 남편 유세창도 군자형 인물이고 敵國 남씨도 선인형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자 스스로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셋째, 그녀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며 자신의 아들로 친정의 혈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체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친정중심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무남독녀인 그녀는 친정의 혈통이 끊기는 것을 걱정하다가 스스로의 역량으로 친정 부모를 奉祭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그 혈통을 잇게 하는, 당대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설초벽은 <유씨삼대록>이 창작된 조선후기⁶⁾ 현실을 고려해 보

에 관한 내용 또한 유씨삼대록 5권에서 6권에 걸쳐 상세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설초벽에 관한 내용만을 모은다면 단편소설 하나 정도는 되는 분량이다. 따라서 결코 적은 분량이라 할 수 없다. 이처럼 대하소설이 워낙 거절이다 보니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위담(단위담)에 대해서는 송성욱, 앞의 논문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임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적다고 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하소설 연구에서 단위담 하나하나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단위담도 작품 전체의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논의에 앞서 각각의 단위담들이 지닌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순전히 여성영웅에 관한 서사만으로 구축된 좁은 의미의 여성영웅소설이 있는가 하면 '여성주인공의 등장', '여성주인공이 자신의 역량을 외부 활동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는 두 가지를 충족하면 넓은 의미의 여성영웅소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2001, 한국고전문학회, 211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한다면, <유씨삼대록>을 굳이 여성영웅소설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설초벽에 관한 단위담은 넓은 의미의 '여성영웅단위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았을 때, 또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인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독특하면서도 문제적인 인생역정을 보이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간의 연구에서는 설초벽에 대해 별다른 주목을 하지 않았다. <유씨삼대록>에서 여성주의적인 세계관을 추출해낸 논문에서도 설초벽에 관한 내용은 한두 대목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되었고,⁷⁾ <유씨삼대록>의 처첩 갈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에서도 설초벽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⁸⁾

본고에서는 설초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유씨삼대록>의 여성주의적 세계관의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당대로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제적인 국면들을 통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당대 여성들이 꿈꾸었을 주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초벽이라는 여성인물이 <유씨삼대록>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조명해 보기로 한다.

2. '설초벽'의 인물형상의 특징

2.1. 남편과 동등한 지기 관계 맺기

설초벽은 남편 유세창과 동등한 지기로서의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결혼 후에도 결혼 전과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임 예부상서 설경화의 딸인 설초벽은 사직한 부친을 따라 서량주로 내려왔는데 부모가 일찍 죽고 돌봐줄 친척조차 없자 보신책으로 어렸을 때부터 남장을 하고 생활한다. 더욱이 천축절도사인 풍양이 모반을 꾀하는 위급한 때를 당하자, 그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무예를 익힘으로써 문무를 겸

6) <유씨삼대록>의 창작연대에 대해서는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44세(1780년)에 청나라 高宗의 長壽를 축하하러 가는 使行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旅舍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정조조 이전에 나온 소설임에 틀림이 없다고 보았다.(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815면)

7) 박일용, 앞의 논문, 201-202면.

8) 이승복, 앞의 논문.

비한 인물로 거듭난다. 이에 주변사람들 모두 그녀를 남자로만 안다. 그러던 중 풍양이 설초벽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선봉장으로 쓰러 하자 설초벽은 자신이 누대 충신의 혈족으로 풍양을 좇아 조정을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친의 청성산 아래 몸을 감춘다. 이 때 유세창이 부친 유우성과 함께 출정하여 풍양의 반란을 평정한 뒤 잠시 말미를 얻어 사친 지방을 유람하다가 설초벽의 글 읽는 소리에 매혹되어 그녀의 초가를 방문하게 된다. 둘은 서로의 인품과 재주에 감복하여 봉우이자 형제의 관계를 맺고 함께 京師로 온다. 유세창은 숨은 선비를 조정에 천거할 마음으로, 설초벽은 유세창과 혼인할 마음으로 함께 정사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설초벽은 유씨가문의 별당에 임시로 거처를 정하게 된다.

이렇듯 산간벽지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 사이가 된 두 사람의 혼인 전 서로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초벽이 유세창을 처음 본 순간 “더의 풍류(風流 |) 동인(動人)하고 영기(英氣)를 출세(出世)하여 이 정히 풍류문인(風流文人)이오 옥모군자(玉貌君子 |)를 보매 드디어 평생(平生)의 탁(依託)을 덩(定)하여 동행(同行)하”⁹⁾게 될 정도이고, 설초벽을 처음 본 유세창은 “평생(平生) 지기(知己)를 만난가 만심(滿心)이 다 환희(歡喜)하여”¹⁰⁾ 할 정도이다. 그렇기에 그 둘이 함께 대화함에 “말마다 의합(意合)하고 기특(奇特)하니 밥 먹고 좁자기를 다 폐(廢)”¹¹⁾할 정도로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인물로 나온다.

이는 혼인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유세창이 설초벽의 작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 여자인 것 같다가도 그 빼어난 기상과 재주를 보면 남자인 것 같기에 성별을 궁금해 하던 중, 과거에서 문무 장원을 한 설초벽이 임금 앞에서 음양을 속인 죄를 고하고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중차대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임금은 문과, 무과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한 재능과 풍양의 제안을 물리치고 끝까지 조정을 저버리지 않은 의기를 높이 평가하여 설초벽을 여장군 여학사에 임명하고 삼백 칸의 대저택을 하사하면서 설초벽과 유세창의 혼인을 주선하게 된다. 그런데 혼인 후에도 이 둘은 동등한 지기로서의 모

9) <유씨삼대록> 5권, 83면.
 10) <유씨삼대록> 5권, 84면.
 11) <유씨삼대록> 5권, 90면.

습을 변함없이 보여준다. 유세장은 “평생(平生) 친의(親愛)호 붕위(朋友 |) 화(化)호여 화축(華燭)의 서로 모드니 신기(新奇)코 영행(榮幸)”하여 “천만(千萬) 은의(恩愛)와 만종(萬種) 풍류(風流 |) 산비희박(山卑海薄)호”¹²⁾게 된다. 설초벽은 혼인하였다고 해서 순종하는 아내로서의 임무를 자처하지 않고 “군휘(君侯 |)(유세장:영릉후에 봉해졌기 때문임) 임의 첩(妾)으로 지기 붕위(知己朋友 |) 되여시니 엇디 녹”(碌碌)호 녀지(女子 |) 되여 군후의 절제(節制)를 긴 날의 엇디 바드리오?”¹³⁾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펼친다. 그리하여 “녕능회 본디 성정(性情)이 강직(剛直)호고 굿세디 설시의 게 다드라는 위엄(威嚴)을 더으디 못”¹⁴⁾한다는 서술자의 평대로, 둘은 지기로서의 동등한 관계를 지속한다.

이처럼, 설초벽과 유세장은 동등한 지기로서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이상적인 부부상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남편과 지기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가부장제 체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수평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준다. 특히 결혼 전 男裝하여 붕우로 있을 때의 지기 관계가 결혼 후 女裝하고 부부가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학사전>, <홍계월전> 등의 단편소설, <화정선행록>, <하진양문록> 등의 장편소설을 막론하고 여성영웅형 인물이 등장하는 대부분의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결혼 전 남장한 상태로는 남주인공과 동등한 지기 관계를 형성하나 여자인 것이 밝혀진 뒤 남주인공과 결혼하게 되면 남주인공이 수하처자로서만 대하려 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된다.¹⁵⁾ 즉, 이들 작품에

12) <유씨삼대록> 6권, 10면.

13) <유씨삼대록> 6권, 14-15면.

14) <유씨삼대록> 6권, 33면.

15) 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문과, 1992; 강진옥,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3, 한국고소설학회, 1997;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 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이경하, 「하옥주論 : <하진양문록> 남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정병설, 앞의 논문;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小考」,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서 여주인공은 결혼 전에는 남주인공과 수평적인 지기 관계를 이루었다가 결혼 후에는 수직적인 부부 관계를 강제적으로 맺게 됨으로써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다.¹⁶⁾

이와는 달리 설초벽은 결혼 전이나 후에나 남편 유세창과 지속적으로 동등한 지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단지 당대에서뿐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성들이 바라마지 않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라 할 수 있다. 여성도 제대로 배우면 남성 못지않은 식견과 재주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있음을 특히 부부 관계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일임을 설초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수평적인 부부 관계는 당대의 수직적인 부부 관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남편에게 귀속된 부속물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아니라 남편과 대등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의 위치를 자각케 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

2.2.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나기

설초벽은 유세창과의 관계만을 놓고 볼 때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서로 간에 갈등의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설초벽과 혼인하기 전 유세창이 이미 남씨를 정실로 맞이하였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남씨는 높은 행실과 어진 마음으로 시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남편을 바르게 내조하는 요조숙녀로서 남편과도 사이가 원만하였다.¹⁷⁾ 그런데 유세창이 설초벽과 혼인한 뒤부터는 남씨와 거리를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등이 있다.

16)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대개의 작품에서 공적 영역에서는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얻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남성과 차등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이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 참가한다는 것이 당대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공적 영역에 관한 자유로운 상상을 상당 부분 허용하지만, 사적 영역 특히 부부 관계란 당대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일상적인 일이기에 이러한 영역에서는 당대의 규범을 벗어난 행위들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현된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17) “남쇼제 인 현여 머뜨러 효봉구고(孝奉舅姑)호고 숙흥야미(夙興夜寐)호여 늬흔 행실(行實)

두자, 설초벽은 자신 때문에 두 사람 사이가 벌어지는 것을 염려한다. 비록 유세창이 한 달을 보름씩 나눠 설초벽과 남씨의 침소를 찾음으로써 겉으로는 공평하게 두 부인을 대하는 듯하나 속마음은 달라 설씨에게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설초벽은 “녕능후[유세창]의 후박(厚薄)이 고르디 아니를 짐작코 즈탄(自嘆)”¹⁸⁾하고 남씨또한 “후(厚)한 가운데 ㅁ음이 다르고 친후(厚)한 가운데 넷 은정(恩情)이 업서지를 보매 그옥이 탄식하여 슬허후”¹⁹⁾게 된다.

오류 삭이 지나도 이러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자, 설초벽은 다음과 같이 결심한다.

내 본디 영결(英傑)의 뜻을 두고 몸이 녀지(女子) 되어 기구(奇途) 명퇴(命途) | 부모의 혈스(血嗣)를 도라보아 혼인(婚姻)의 구차(苦楚)를 피치 못하고 녀능후(女能後) 조츠매 이제 군즈(君子)의 제가(齊家)를 못하고 상여(相如)[사마상여(司馬相如)]의 무신(無信)후미 이서 숙녀(淑女)의 후(恨)이 뉴미(柳眉)를 줌으게 하고 나의 반성(半生) 의협(義俠)이 도로혀 소춤(訴愁)하고 호룡(好龍)후는 무리 되게 하니 이는 진실노 만세(萬世)의 붓그러오미라 엇디 구 | 히 이에 머물니오 후플며 님군 주신 가새(家舍) | 이시니 스당(祠堂)을 일위 부모 향화(香火)를 밧들면 이는 아들이 업다가 잇고 쏫춘 후(後)를 다시 니오미라 맛당이 구고(舅姑)귀 령(歸寧)하여 십즈가 본부(本府)의 도라가 저의 부 | (夫婦)[유세창과 남씨]를 편히 하고 나의 효의(孝義)를 완전(完全)후리라(<유씨삼대록> 6권, 20면)

설초벽으로서의 자신이 본래 영웅호걸에 뜻을 두었으나 여자로 태어나 이러한 뜻을 펼치지 못하고 부모의 혈통을 잇기 위해 구차히 혼인하였는데, 남편이 제가를 고르게 하지 못해서 자신이 반평생 의롭게 산 것이 부끄럽게 되고 도리어 총애를 다투는 무리로 전락함에 더 이상 부끄러워 견딜 수

과 어딘 ㅁ음이 크게 숙녀(淑女)의 풍채(風采) 이서 데스숙미(娵姒叔妹)를 화우(和友)하고 세창을 어디러 인도후니 부부(夫婦) | 단중(珍重)하고 구괴(舅姑) | 스랑후여 후(點) 흠홀 거시 업스디”(<유씨삼대록> 2권, 36면)

18) <유씨삼대록> 6권, 19-20면.

19) <유씨삼대록> 6권, 16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금이 하사한 집으로 자신이 떠남으로써 남편과 남씨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겠다고 다짐한다. 혼인 초부터 무남독녀인 그녀는 시택에 오래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부모의 제사를 받들며 후사를 잇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었는데,²⁰⁾ 여기에 남편과 적국간의 갈등이 불거지자 시택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설초벽이 시택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과 남씨의 불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실 설초벽은 자신이 시택에 기거하는 한, 남편과 남씨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온전치 못할 것을 예견하였기에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결심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설초벽의 시어머니인 이부인의 근심어린 생각 속에 잘 드러나 있다.

니부인이 김히 슬피고 헤아리디 세형은 공쥬[진양공주]의 덕을 아디 못흐고 외입(外入)히여시매 씨뎡과져 히여 니르미 잇거니와 삼으(三兒)[유세창]는 남시의 어딜물 아디 스정(私情)의 잇글너 므음이 너도흐나 늬이 그르다 흘가 반월(半月) 식 갈나 이셔 미스(每事)를 공평(公平)이 흐는 데흐니 닐너 말흐미 어렵고 설시 현털(賢哲)히여 당시의 공교(工巧)흐과 다르니 남시 평성(平生)을 회복(回復)기 어렵도다 히여 온가지로 스량(思量)히여 스식(辭色)이 불안(不安)히더니(…) (<유씨삼대록> 6권, 17면)

자신의 둘째 아들인 유세형과 며느리인 진양공주 사이가 벌어진 것은 유세형이 공주의 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활한 장씨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 셋째 아들인 유세창은 이미 남씨가 어진 것을 알고 있는데도 현철한 설초벽에게 빠져 있으니 남씨의 상황이 껍이나 난처한 것이라고 이부인은 판단하고 있다. 유세형이 진양공주가 덕스럽고 장씨가 교활한 것을 알고 난 뒤에는 장씨를 멀리하고 진양공주를 후대한 것과는 달리, 유세창은 남씨가 어진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냉대하고 설초벽도 흠잡을 데 없이 현철하

20)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상세히 살피기로 한다.

니 그들의 관계가 달라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설초벽이 있는 한, 남씨는 유세창과의 관계를 평생도록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부인의 생각이다.

이처럼, 설초벽은 자신의 존재가 있는 한 남편 유세창과 적국인 남씨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 짐작하고는 시택을 떠나기로 결심을 굳힌다. 시부모가 만류하였지만 설초벽은 부모에 대한 효를 행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자신은 “번외(番外)의 사름으로 부등(府中)을 요란(搖亂)할 분이라 유무(有無) 불관(不關)호”²¹⁾다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 이미 정실인 남씨가 있기에 자신은 번외에 있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집안이 어지럽게 되니 자신은 떠날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다. 이에 시부모 또한 가끔씩 시택에 들르라 하며 이를 허락해 준다. 한편, 설초벽은 남편 유세창이 자신이 시택을 떠나는 것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유세창에게는 잠시 임금이 하사하신 십자로 본부에 돌아가 부모의 사당을 세우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십자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떠난다.

설초벽이 돌아간 곳은 십자로에 위치한 ‘문무장원각’으로 “광활(廣闊)호 누대(樓臺)와 층(層)호(層層)호 주함(朱檻)이 십니(十里)를 둘러”²²⁾ 있는 대저택이다. 이곳은 설초벽이 문무 장원을 한 뛰어난 재능과 설양의 제안을 물리친 불굴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여 임금이 하사한 곳이다. 市井의 변화가에 위치한 대저택으로서 설초벽만의 독자적인 공간인 것이다. 설초벽은 가장 높은 누각인 ‘강선루’에 자신의 처소를 정하고 여러 노복들에게 각자 담당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며 그곳에서 평생을 지낼 준비를 한다.

그러고는 잠시 이곳에 들른 남편과 한 잔 술을 나누면서 “금일 일비쥬(一杯酒)로 전일(前日) 부(夫婦) 되었던 의(義)를 뜻고 다시 형제(兄弟)와 붕우(朋友)의 정(情)을 니어 지기(知己) 교도(交道)를 열”²³⁾ 것이라 선언한다. 여자의 도리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남편 유세창이 정실이 있는데도 외친내소하고 자신을 구구한 정으로 치욕스럽게 함에 자신은 오늘 한 잔 술로 부부가 되었던 의를 끊고 다시 붕우형제가

21) <유씨삼대록> 6권, 22면.

22) <유씨삼대록> 6권, 23면.

23) <유씨삼대록> 6권, 24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세창이 비록 이 말을 듣고 노하고 한하나 설초벽의 칼날 같은 기색에 압도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별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후 설초벽은 문무장원각에 줄곧 기거하면서 한 달에 두 번씩 시부모를 뵈러 시댁에 오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면서 유세창을 멀리하며, 유세창이 가끔 문무장원각을 찾아와도 멀리 거처하면서도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다. 이에 설초벽에 대한 정을 펼 길이 없어진 유세창은 다시 남씨를 찾아 옛정을 잊게 된다.

시댁을 떠나 문무장원각에 머물던 설초벽은 이후에 더욱 세상일에 소탈해져 십자로에 있는 집의 번잡하고 요란함을 피해 도성 남쪽 만세산 곁에 큰 집을 이루고 은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설시의 퇴손(退遜)호는 현렬(賢哲)호는 지혜 능히 남시의 일생(一生)을 회복호”²⁴⁾였다는 서술자의 평가대로, 설초벽은 유씨 가문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무(有無) 불관(不關)호”²⁵⁾라고 자처하면서 남편과 적국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스스로 부부간의 정을 끊고 거처를 옮겼던 것이다. 시댁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있으나마나 관계없다”고 스스로 언급한 대목에는, 일부다처제 하에서 여성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목소리가 깊이 있게 담겨 있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남편을 선택했으면서도 정실과 남편 사이의 화려한 관계를 위해 희생적인 절제력을 보이는 설소저의 성품을 통해,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부부갈등이 단순히 부덕을 소유하지 않은 부정적인 여인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만을 이야기한 것이다.”²⁵⁾라는 선행연구의 지적대로, 설초벽은 선인형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로 인해 유세창과 남씨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그녀뿐만 아니라 남씨도 선인형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꼭진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더욱이 설초벽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첫째부인이 아닌 둘째부인인 데다가 남편이 첫째부인을 제쳐두고 자신만을 총애하기에 이런 상황이 치욕스

24) <유씨삼대록> 6권, 35면.

25) 박일용, 앞의 논문, 202면.

러워 견딜 수 없었을 터이다. “나의 반생(半生) 의협(義俠)이 도로혀 소춤(訴讒)하고 호통(好寵)하는 무리 되게 하니 이는 진실노 만세(萬世)의 붓그러오 미라”²⁶⁾라는 그녀의 말대로, 일부다처제라는 구조 아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들 눈에 총애나 다투는 편협한 인간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여걸로서 의협심이 강했던 그녀에게 주위의 이러한 시선은 더욱 불편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에 그녀는 부부간의 의를 끊고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났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제 자체가 지닌 모순이 정직하게 드러난다. 모범적인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일부다처제라는 가부장제의 구조상 그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초벽, 유세창, 남씨 간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실 남편이 허량한 남편이거나 적국이 악인형 인물이거나 할 경우에는 이는 단순히 개개인의 성품 때문에 야기된 갈등으로 치부되어 가부장제의 결함이 드러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장편소설에서 적국이 악인형 인물에게 갈등이 야기되며 이러한 갈등은 한 개인의 성격적 결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부장제의 결함을 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와는 달리 설초벽의 경우에는 남편도 적국도 모두 모범적인 인물들이기에 가부장제의 결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한편, 설초벽처럼 시댁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지향하는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 <화정선행록>의 충효혜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당대 가부장제 체제 속에서 여성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고뇌가 설초벽이 경우에 더 깊이 있게 묻어난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는 비록 적국인 허씨는 선인형 인물이나 남편 양송이 방탕한 인물에게 이런 남편을 피해 ‘취미궁’이라는 탈속공간으로 향한다. 양송은 이미 허씨와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양공주와 혼인하기 위해 이 사실을 숨기고 조강치처인 허씨를 출거하는 의리 없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色을 보면 행실을 저버리는 방탕한 인물로서, 무양공주는 이런 남편을 피해 자신만의 공간인 취미궁으로 떠나게 된다.²⁷⁾ <화정선행록>의

26) <유씨삼대록> 6권, 20면.

27) <취미삼선록>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

충효혜는 적국 화순공주도 선인형 인물이고 남편 임창연도 군자형 인물이기는 하나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점이 그녀가 '성의궁'이라는 탈속공간으로 향하는 원인의 하나가 된다. 결혼 전 충효혜가 남장하고 있을 때는 자신을 지기로서 대했던 임창연이 결혼 후 충효혜를 수하처자라 하면서 자신 밑에 복종시키려 하자 충효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떠났던 것이다.²⁸⁾ 그런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의 경우에는 적국인 남씨도 선인형 인물이고 남편인 유세창도 군자형 인물일 뿐만 아니라 남편이 혼인 후에도 그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초벽은 이런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깨고 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여타의 작품들보다 비극적인 색채가 더해진다.²⁹⁾

이와 관련하여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 <화정선행록>의 충효혜가 애초에 깊은 산 속의 탈속 공간으로 향했던 것과는 달리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은 처음에는 시속 공간에 있다가 이후 탈속 공간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나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처음부터 세상에 대한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세상과 단절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안존한다. 이와는 달리 설초벽은 처음에는 세상과 소통이 가능한 그것도 십자로에 위치한 시속에 자기 공간을 정한다. 이는 천자가 하사한 집이 십자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녀가 이곳에서 일정 정도의 세월을 머물렀던 것은 그녀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녀는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세상을 낮고저”³⁰⁾ 산 속의 탈속 공간으로 이동하여 은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를 통해 그녀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게 된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한참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임을 짐작

학연구』6, 국문학회, 2001;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등이 있다.
 28) 물론 화순공주와 정실 자리를 놓고 어쩔 수 없이 벌일 수밖에 없는 소모적인 경쟁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에 관한 논의는 이미 한길연(2002)에 의해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29) 물론 여기에는 친정의 혈통을 잇겠다는 욕망 또한 자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비극적 인식은 깊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30) <유씨삼대록> 6권, 34면.

할 수 있다. 이처럼 <취미삼선록>의 무양공주, <화정선행록>의 충효혜가 매우 능동적으로 자기만의 공간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났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슬픔이 더 깊게 묻어난다. 그녀는 정실인 적국과 남편의 부부 관계를 회복케 하기 위해, 자신과 남편과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2.3. 친정 奉祭祀 및 혈통 잇기

설초벽은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남으로써 남편과 적국 사이를 회복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부모의 사당을 짓고 자식들을 데려다가 친정 집안의 혈통을 잇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전소설에서 여성인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대목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설정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이미 혼인 초부터 자신은 세속 부녀자의 소임을 원치 않으며 다만 조상의 뒤를 이을 한낱 자식을 얻는다면 남편과의 관계를 끊고 산간에 서 지낼 것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³¹⁾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 남편과 적국의 사이가 나빠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런 결심은 확고해진다. 자신이 시택에 있으면 남편과 적국의 불화의 근원이 되지만,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나면 남편과 적국의 관계를 회복케 할 뿐만 아니라 효를 온전히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결국 문무장원각에 돌아가 사당을 세워 부모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며 한 평생을 지내게 된다. 또 자신의 아들로 친정 가문의 혈통을 잇게 한다. 그녀는 유세창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그 아들로 친정 가문의 후사를 잇게 하였던 것이다.

31) “부모(父母) 혈스(血嗣)를 닛고져 허와 금일(今日)의 니락오나 진실노 세속(世俗) 부녀(婦女)의 소임을 원치 아니 하옵느니 다만 종스(宗嗣) 니을 일개(一介) 혈속(血屬)을 어들진디 녕능후의 자취를 끈코 초성(此生) 계활(計活)을 산간(山間)의 부치라 하옵느니라 엇디 통(寵)을 드토고 녀도(女道)를 길게 흐리잇고”(〈유씨삼대록〉 6권, 12면)

물론 이러한 결심을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시부모인 유우성과 이부인에게 임금이 주신 집에 돌아가 부모의 제사를 받들게 해 달라고 청원했을 때, 유우성과 이부인은 깜짝 놀라 “식부(息婦 |) (시집) 완 지 오래디 아니코 녀즈유흥(女子有行)이 원부모형데(遠父母兄弟)라 흐믈며 그더는 유소취무소귀(有所取無所歸)흔 녀지(女子 |)어놀 엇디 십즈가(十字街) 빈 집의 가 일생(一生)을 디내미 가(可)히리오”³²⁾라고 말하며 이를 만류한다.

이에 대해 설초벽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

설시 척연(楊然) 타루(墮淚) 왈曰 “구고(舅姑)의 존교(尊教 |) 스리(事理)의 당연히시나 스리의 당연히시나³³⁾ 쇼부(小婦 |) 임의 형데(兄弟) 업고 형혀 부모의 혈식(血食)이 첩(妾) 일신(一身)으로 비록 자랑내미 아니오나 요형 남즈(男子)의 스업(事業)을 일위 님군 은혜로 집을 일우고 스시(四時) 향화(香火)를 받들 만히오니 비록 녀지(女子 |)나 효의(孝義) 엇디 남네(男女 |) 다르리잇고?” (<유씨삼대록> 6권, 22면)

설초벽은 효도하고픈 마음이야 어찌 남녀가 다르냐고 반문하면서 무남독녀인 자신은 요행히 남자처럼 문무장원을 하여 임금이 하사한 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부모의 제사를 받들며 효를 온전히 하겠다고 말한다. 설초벽의 이러한 확고한 태도에 시부모도 마지못해 그녀의 뜻을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비록 녀지(女子 |)나 효의(孝義) 엇디 남네(男女 |) 다르리잇고?”라는 대목은 당대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로서 시부모에게 이런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설초벽의 남다른 의식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부모보다도 더 화를 내며 설초벽의 결심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 유세창에게도 설초벽은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말한다.

32) <유씨삼대록> 21-22면.
33) '스리의 당연히시나'가 중복되어 있다.

군후(君侯)이 썩은 노기(怒氣)이 갓흐니 전일(前日) 형제붕우지정(兄弟朋友之情)을 생각하여도 용사(容恕)함이 이시려든 삼강(三綱)의 둥(重)함이 짝너 일죽이 갓흐를 모르미 아니로디 부피(父母)이 생아(生我)하사 군후(君侯)를 만나미 이시니 임의 지조를 품고 산간(山間)의 도은(逃隱)하여 천신만고(千辛萬苦)를 겪고 일만(一萬) 혐의(嫌疑)와 난처(難處)한 가운데 군후를 조춤도 부모 유테(遺體)를 상(傷)히오디 못하여 혈식(血食)이 니으물 바라미오 임의 군후의게 의탁하여 일흠을 덩(定)하매 강포(強暴)를 막고 한가(閑暇)한 집의 스묘(四廟)를 밧드러 향화(香火)를 소임(所任)하여 일생(一生)은 남즈(男子)의 도(道)를 다하고자 흠도 부모(父母)를 위하미라 뜻이 크게 덩(定)하여시니 군후(君侯)의 노기로 요동(搖動)하리오 나라회 고(告)하를 니르디 말고 면전(面前)의셔 법(法)을 뵈어도 호발(毫髮)도 동(動)치 아니하리니 군후는 무익지노(無益之勞)를 그치고 군즈(君子)의 관인(寬仁)하를 힘쓰쇼셔(<유씨삼대록> 6권, 25-26면)

자신이 산간에 숨어 천신만고를 겪고도 온갖 혐의를 무릅쓰고 유세창을 따른 것은 부모의 후사를 잇고자 함이었으니 이제 소소한 아내로서의 도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유세창이 자신을 나라에 고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면전에서 법으로 처벌해도 자신은 조금도 요동치 않을 것이니 쓸데없이 노하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당부한다. 유세창 또한 설초벽의 뜻이 굳음을 알고 그 말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게 된다.

이처럼 설초벽은 자기만의 공간에서 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자신의 아들로 친정의 혈통까지 잇게 한다는 점에서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남편과 적국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초벽이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에 이를 무조건 여성중심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쩌면 남성중심적인 사고 또한 다분히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대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당대의 여성들과는 달리 설초벽은 친정중심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녀의 행위는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후기 여성이 친정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

이었다. 조선 초기에도 장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딸만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고 사위나 딸, 또는 외손자로 제사를 지내게 했고 또한 아들과 딸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는 아들이 없는 경우에도 딸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고, 양자를 들여 후사를 잇는 것이 일반화되어 딸은 제사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³⁴⁾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설초벽이 여자로서 시댁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부모의 제사를 받든다는 것은 당대로서는 신선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단순히 자신 대에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친정 가문의 혈통을 이어 계속해서 친정 가문을 존속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의 설초벽과 마찬가지로 무남독녀로 등장하면서 돌아가신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는 여성인물로는 <소문록>의 윤씨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녀는 설초벽처럼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였기에 단지 남편의 도움으로 시댁 한 칸에 친정부모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 지내는 정도로 끝나고 있다. 설초벽처럼 친정의 혈통을 잇는 데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은 친정의 혈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으로서 매우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씨양옹쌍린기>의 주소저의 경우는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처럼 무남독녀로서 자신의 아들로 친정 집안의 혈통을 잇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그녀는 설초벽처럼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나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친정의 혈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시댁에 그대로 머물고 자신의 次子를 친정 가문의 후사로 들여 친정의 혈통을 잇게 한다. 가정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친정의 혈통까지 잇게 한다는 점에서 주소저의 경우는 어쩌면 설초벽보다도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매우 드문 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녀의 모습은 조선후기 여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³⁵⁾ 물론 <유씨삼대록>의 설초벽도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는

34) 이희근, 『주제로 보는 한국사』 3, 고즈원, 2006, 152-153면.
 35) 이와 관련하여 후시 <현씨양옹쌍린기>의 창작 연대가 매우 앞서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본다.

어렵지만 여자가 자신의 아들로 친정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는 시댁을 떠나야 할 만큼의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역으로 17세기 이후의 일반적인 시속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씨양옹쌍린기>의 주소저는 비록 자신의 아들로 후사를 잇게 했지만 그녀는 시댁에 계속 머물러 자식과 떨어져 지내게 된다. 자식을 주소저의 부모가 대신 기르게 됨으로써 온전한 모자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이는 남성들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자식으로 후사를 잇게 하며 부자 관계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의 경우에는 남성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자식과 함께 생활하며 모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정의 혈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짚고 갈 문제가 있다. 그것은 친정의 혈통을 잇기 위해 그녀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이다. 조선후기에 남자가 결혼하여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고 또 자식을 낳아 자신의 혈통을 잇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하여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고 또 자식을 낳아 자신의 혈통을 잇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조적인 국면에 처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불평등한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 설초벽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혈통으로 친정 가문을 이으려 하는 인물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남편과의, 그것도 지기상함하는 남편과의 생활을 포기하고 홀로 자기만의 공간에서 일생을 살아갈 결심을 하였던 것이다. 그녀가 부모를 위해 “일생(一生) 남조(男子)의 도를 다하고자” 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남자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 남자처럼 부모 제사를 모시고 혈통을 잇기 위해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버리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설초벽의 주체적인 행위 속에는 그녀 스스로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크나큰 대가가 전제되어 있기에 당대 남성중심적인 사회가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이 적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3. '설초벽'의 인물형상의 의의 -결론을 대신하여

설초벽이란 인물은 여성도 남성 못지않은 능력과 식견을 지니고 남편과 대등한 지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시댁을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을 지향할 수 있고, 보편적인 효 의식에 기반 하여 남성처럼 부모를 제사 지내고 자식으로 자신의 혈통을 잇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인물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남편과 동등한 지기관계 맺기,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나기, 친정 봉제사 및 혈통 잇기라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주체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또한 함축되어 있음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었다.

설초벽은 여성인물 중에서도 여성영웅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성영웅형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녀의 독특한 모습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학사전>, <홍계월전>, <화정선행록> 등의 여성영웅형 인물들이 대개 결혼 전 남장하고 있을 때는 남주인공과 지기 관계를 이루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의 수하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과는 달리, 설초벽은 결혼 전후에 걸쳐 지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역으로 당대의 수직적인 부부 관계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함축하게 된다.

다음으로 <이학사전>, <홍계월전> 등의 여성영웅형 인물들 대개가 가정 안에 안주하여 회한에 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과는 달리, 그녀는 이러한 가정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가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적국의 관계를 회복케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는 설초벽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공간을 지향하는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비교해 보았을 때도 그러하다. <화정선행록>의 충효혜는 남편과의 갈등이 존재하였기에 자기만의 공간으로 떠났는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은 남편과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국을

위해 스스로 몸을 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됨으로써 당대 가부장제 체제가 지닌 결함이 순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더욱이 일부다처제의 구조상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총애나 다투는 편협한 여성으로 남들에게 비취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초벽에 관한 단위담은 일부다처제의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가할 수 있는 태생적인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친정 부모의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자식으로 친정의 혈통을 잇는다는 점에서 여성영웅형 인물로서는 매우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친정중심적인 설초벽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주체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이를 위해 그녀는 부부 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크나큰 희생을 감내해야 함으로써 당대 남성중심적인 사회체제가 지닌 결함 또한 적실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처럼, 설초벽을 통해서도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과 더불어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체제 아래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고통 또한 짙진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당대 가부장제 체제 안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일 수 있는지, 또 당대 체제를 뛰어넘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초벽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었다.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설초벽의 모습 뒤에는 자존감을 지닌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뇌가 짙게 깔려 있다는 점에서 설초벽의 모습은 혁신적이면서도 비극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설초벽은 <유씨삼대록>에서 여성주의적인 세계관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진양공주와 더불어 작품의 두 축을 이루는 중요한 여성인물이라 할 수 있다.³⁶⁾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는 당대 여성으로서의 전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 남성인물들을 능가하는 전인적인 성품과 앞일을 내다보는 예지력으로 당대 체제 ‘안’에서의 이상적인 여성상을 선보이고 있다면, 설초벽은 당대 여성으로서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체적인 자기 각성을 통해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감으로써 당대 체제

36)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와 설초벽 이외에도 다수의 여성인물들이 나온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주의적인 색채와 관련하여 진양공주나 설초벽처럼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밖'에서의 혁신적인 여성상을 선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⁷⁾ <유씨삼대록>에서 설초벽이라는 인물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여성주의적인 세계관과 관련하여 진양공주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인물인 점도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다만,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이면서도 문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설초벽을 그려내면서 어느 정도의 안전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설초벽이 속한 계층적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진양공주가 상층 가운데서도 최상층이면서도 왕실 출신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임에 비해, 설초벽은 상층 중에서도 한쪽에 속하면서 변방 출신의 지역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그녀는 상층 여성의 규범적인 삶을 사는 여성과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인물로 나온다.

이는 설초벽을 자신의 집안으로 맞아들이면서 유씨 가문 여성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문무 장원을 한 설생이 설초벽임이 밝혀지고 임금의 주선하에 유세창과 혼인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자, 먼저 시어머니가 될 이부인은 이마를 찡그리면서 “나는 용졸(庸拙)한 부인이라 이런 널협(烈俠)을 즈부(子婦)로 호리오 괴롭고 괴로울디라 삼익(三兒) | 유세창 | 종시(終始) 아름다운 즈식이 아니로다”³⁸⁾라고 말한다. 그러자 이부인의 둘째 딸이자 설초벽의 시누이가 될 양한림 부인 유현영은 “부덕(婦德)은 대가(大家) 덕요(德耀)의 더으며 업느니 녀즈(女子)의 삼략육궤(三略六韜) | 가히 당치 아니토소이다”³⁹⁾라고 대답하며, 이부인의 셋째 딸이자 설초벽의 시누이가 될 사어사 부인 유옥영은 자신의 오라비인 유세창을 보고 “남져[남씨]의 숙뇨(淑窈) 흠미 분(分)의 넘어 변방(邊防) 괴물(怪物)을 어더 계시니 그러커든 득현의 주야(晝夜) 줌겨 그리 혹(惑)호여 계시리잇가”⁴⁰⁾라고 묻는다. 또 시부모를 뵈는 예식을 행하는 설초벽을 보고 유세창의 어린 누이인 옥영은

37) 설초벽이 아예 당대 사회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당대 체제 '밖'에 속한다고 표현한 것은 그녀의 삶이 당대 일반적인 여성들의 삶의 방식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결혼한 여성으로서 시댁을 떠나고 있으며 중국에는 사회마저 떠나 혼자처럼 살아가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38) <유씨삼대록> 6권, 4면.

39) <유씨삼대록> 6권, 4면.

40) <유씨삼대록> 6권, 5면.

“반순타비(反唇唾飛)호여 웃”⁴¹⁾이다. 여기에서 “변방 괴물”이라는 말은 설초벽의 신분적 위치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대목으로, 京城 중심의 상층 여성들과는 차별적인 존재로서의 설초벽에 대한 인식이 작품 내의 여성들의 말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겉사일 따름이지만 “불초이(不肖兒) 가엄(家嚴)의 훈(訓)과 즘모(慈母)의 교(教)를 듣디 못하고 변방(邊防)의 생당(生長)호여 강호(強豪)의 성(性)을 보고 즘라니 형실(行實)이 무식하고 도리 불명(不明)호”⁴²⁾라고 설초벽이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변방의 여인이라 지칭하고 있다.

물론 설초벽은 그 재능이나 인품 면에서 유씨 가문의 여타의 여성들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양공주를 제외한 여타의 유씨 가문 여성들을 능가하는 자질과 인품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유씨 가문 여성들도 처음의 경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에는 설초벽의 사람됨을 인정하고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해 준다.⁴³⁾ 중요한 점은 작품 곳곳에 설초벽이 유씨 가문의 일반적인 여성들과 차이를 지닌 인물임을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장치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녀의 독특한 인생 역정이 일반적인 여성의 삶이라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평범치 않은 여성의 삶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장치가 <유씨삼대록>에서는 계층과 지역이라는 신분적 조건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녀가 예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성인물로 그려질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신분적 조건을 그 근저에 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궁중과 관련한 최상층 여성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논의되는 <유씨삼대록>은,⁴⁴⁾ 설초벽과 같은 인물을 그려냄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범적인 여성의 모습으로서보다는 특수한 국면에 처한 이례적인 여성의 모습으로서 설초벽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

41) <유씨삼대록> 6권, 13면.

42) <유씨삼대록> 6권, 12-13면.

43) 예외적으로 진양공주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초벽의 자질과 인품을 꿰뚫어 보고 그녀를 인정해 주며 환대한다.

44) 박일용, 앞의 논문 ; 한길연(2007).

품 전체의 여성주의적 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설초벽이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신이 목소리를 또렷이 내고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히려 변방 한족 출신이라는 안전판 아래, 설초벽은 당대 여성들이 꿈꾸었을 혁신적인 모습들 혹은 가부장제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설초벽은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인물 중 그녀만의 색채를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가부장제의 체제 안에서 전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진양공주와는 대조적으로 체제 밖에서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작품 전체의 균형을 유지케 하면서 <유씨삼대록>의 여성주의적 목소리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진옥, 「<이형경전(이학사전)>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3.
- 김현숙, 「<유씨삼대록> 연구-삼대기 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 소인호, 「<취미삼선록>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뉴효공선행록>과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이경하, 「하옥주論 : <하진양문록> 남녀주인공의 기질 연구(1)」,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 이수봉, 「가문소설 연구」, 『동아논총』 15, 동아대학교 출판부, 1978.
- 이순규,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이수봉, 「<유씨삼대록> 연구」, 『동천 조건상박사 교회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8.
-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 _____,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 이인경, 「<홍계월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2.
-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이희근, 『주체로 보는 한국사』 3, 고즈원, 2005.
-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9.
- _____, 「연작형 삼대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임치균, 「<취미삼선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_____, 「고전 대하소설에 나타난 영웅적 여성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전용문, 「<이학사전>의 구조와 인물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3, 한국고소설학회, 1997.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 19, 2001, 한국고전문학회.
- 조용호, 「<유씨삼대록>의 서사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 _____,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小考」,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2002.
- _____,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A Study on Seolchobeuk of *Yussisamdaerok*

Han Gil-yeon

'Seolchobeuk' is important character for knowing feminism viewpoint of *Yussisamdaerok*. In the meantime the feminism viewpoint of this novel has been mainly discussed on Princess Jinyang, now Seolchobeuk has another importance in this thesis.

She has three distinctive aspect as heroine. first of all, she shows ideal conjugal relation that is rare in the patriarch system through a bosom friendship with her husband. Secondly, she raises an objection to man-centered polygamic patriarch and gropes her way to the world of feminism in the point that she leaves the house of husband to attempt the harmony between husband and enemy country and live alone for life in the her own space. Thirdly, she shows woman's standpoint attaching importance to the family in which she was born in the point that she practices ancestor worship and realize maternal line in her own space.

As independent woman with self-respect and social agony, she is progressive and tragic character. Princess Jinyang is the ideal woman character inside of the age as the whole woman and foreknowledge that surpass men. On the other hand, Seolchobeuk shows the progressive woman character outside of the age through carving her own life way withsubjective self-disillusion.

Key words : *Yussisamdaerok*, Seolchobeuk, heroine, feminism, Princess Jinyang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